

2008 하천환경세미나 - 고문 및 자문위원 간담회

## 미래하천과 문화의 발전을 위한 소리 모음

- 우리협회 부회장 우호섭 정리 -

우리 협회는 연례행사인 「하천환경세미나」를 2008년 12월 2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하면서 동시에 특별 세션으로 협회 고문과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협회 간담회를 가졌다. 모두 35인이 참가한 이 모임에서 먼저 김국일 회장의 인사말과 정한기 전문위원의 협회활동 보고, 그리고 협회홍보 동영상 상영을 하였다. 다음 최무장 역사문화특별위원장의 「하천과 인류문화 발달사」에 대한 특별 강연이 있었으며, 이어서 심순보 자문위원의 「U-eco 시티」 관련 생태하천에 대한 의견 피력이 있었다. 다음 우호섭 협회 부회장의 사회로 협회 발전에 대한 고문, 자문위원들의 소리모음 시간을 가졌다. 이 글은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인사말 - 김국일 회장



사회·우효섭 부회장

● 우효섭 부회장

협회 고문님과 자문위원님 모두 안녕하십니까? 저는 협회 부회장을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우효섭입니다. 우리 협회가

2004년 1월에 설립된 이후, 올해 하천법에 의한 설립근거 마련으로 법정단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협회 활동의 반성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협회 고문님과 자문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아이스 브레이킹' 의미로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만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운하 하나만을 강조함에 따른 문제점을 분명히 적시하여 정부 및 관계자들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협회의 중요한 임무와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 우효섭 부회장

금년 들어 하천, 수자원 분야 최대 현안으로 보이는 정부의 새로운 하천사업에 대해 우리 협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참고하여 협회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순보 자문위원

● 심순보 자문위원

우리 협회 설립이 정부를 비롯하여 학·연·산 등 하천분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지혜롭게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적으로 마련해준다는 데에 일차적으로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정부지원을 많이 받는 타 협회의 예처럼 우리 협회 또한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국정지표 중 하나인 '유에코씨티' 사업을 활용하여 생태하천을 한국적 브랜드로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충수 고문

● 임충수 고문

현 김국일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우리 협회가 큰 발전을 이루었고 협회의 장래 또한 밝다고 할 것입니다. 협

회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선 우선 협회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며, 이것이 협회가 나아갈 건강한 지름길입니다. 즉 하천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집대성하여 회원을 포함한 관심자들에게 하천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협회에서 나온다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우리 협회의 확고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회 회원들의 응집력과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현재 시행중인 해외하천탐방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사를 보다 조직적이고 계획성 있는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행하면 회원 및 공무원, 민간 등 모든 분야에서 호응을 받아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 우효섭 부회장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깊은 고견은 정리하여 협회지 <하천과 문화>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윤태훈 자문위원

● 윤태훈 자문위원

과거 언론에 거론된 바 있는 운하 건설은 하천의 친수성이 지나는 기능과 정서는 없어지고 오로지 수송



최예환 자문위원

● **최예환 자문위원**  
수자원 당면 과제로서 급년에 태풍이 오지 않아서 앞으로 강우량이 부족한 상황이며, 지하수 개발로는 가뭄 해소에 한계

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 전문가로서 이러한 물 부족 현상, 즉 용수문제 만큼은 그 대책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상기후 도래 시 가뭄을 대비한 정책적인 방안을 건의하고 미리 연구하는 것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 **우호섭 부회장**

올해 치수, 이수 현안이 상대적으로 적어, 물 문제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원철 자문위원

● **조원철 자문위원**  
하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법률상으로 또는 행정적 측면에서 하천을 단지 제

방과 수로로 이해함으로써 언론에서도 그렇게 다루지고 있습니다. 하천에 대한 개념을 보다 크고 넓게 가져야만 진정한 생태하천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생태하천을 '조경 하천'으로만 간주하여 생기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하천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극심한 가뭄과 한발 현상과 관련된 하천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하천법이 소방방재청에서 다루고 있는 '소하천정

비법'과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등의 하천 관리 부문을 모두 수용해줘야 할 것입니다. 하천법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소하천과 산지하천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천 협회가 주체가 되어 하천법을 정비 통일하여야 할 것이며,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로서 하천의 유역관리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윤용남 자문위원

● **윤용남 자문위원**

5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협회가 많은 일을 했고 업적을 쌓은 것에 대해서 두 분 회장님과 간부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현시점에서 협회가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의 기능을 크게 이수나 치수 하천환경, 문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초점은 하천환경 측면이었지만 이수나 치수 측면에서 협회가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사 학회나 협회에서 다룰 수 없는 영역인 정책개발 또는 기술과 관련되는 정부의 수자원정책 부문을 적절히 찾아, 타 단체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회의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우호섭 부회장**

하천의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인 치수 및 이수에 대해 그동안 협회 역할이 미흡했고, 그러한 분야로 새롭게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타 단체와 각기 다른 역할 속에 중첩되지 않는 보완적인 관계로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한중섭 자문위원

● 한중섭 자문위원

실질적인 제안으로 하천협회 이름으로 어느 하천구간을 지정·표준화하여 모범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교육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하천'을 만드는 방안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홍기 자문위원

● 지홍기 자문위원

하천협회의 발전과 건전한 우리 하천의 관리를 위한 정부에 대한 건의로서, 현재 전국의 산재한 하천에서 하천골재 채취와

관련한 평가 내지 인허가와 관련한 질서가 필요합니다. 즉, 하천의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하천 골재채취와 관련된 평가 기준을 우리 협회에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골재채취 허가를 해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난립해서 무질서하게 행해지고 있는 골재채취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하천 점용 허가권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 관리 하에서 하천질서가 제대로 잡혀지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윤태훈 자문위원

협회 및 정부, 기타 유관 학회 및 협회 등 모든 하천 및 수자원 연관 단체에 대한 공동제안으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루지고 있는 이상기후 및 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한 정부과제 중 상당 부분이 우리 수자원 분야에서 연구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자원, 하천 분야

가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과업에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그래야만 비로소 기술로 발전할 수 있고 나아가 해외 진출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송재우 자문위원

● 송재우 자문위원

윤용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치수문제에 협회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에 동참합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치수나 이수보

다는 환경 및 친수 공간 측면에 치중하다 보니 협회를 비롯하여 모든 단체들이 환경 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협회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현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증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협회가 다루는 방안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수에 강한 공법, 생태가 우수한 공법, 미관이나 경관 등에 우수한 공법, 나아가 치수에도 강하고 다른 목적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공법이나 재료 등에 'Q마크'와 같은 협회의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협회가 인증하는 공법의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또 한 가지, 현재 협회 회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회원이 있는데, 이른바 협력단체를 두어 이러한 단체들과 정식으로 MOU 등 협정을 체결하여 기술교류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력 단체를 확보하는 것도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국토해양부 하철 사무관



국토해양부 하철 사무관

협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른 협회와 비교할 때 여러 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의 수탁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선, 국토해양부 산하에 있는 약 60개 법정 단체와 협회의 법적근거를 검토하여, 이러한 협회들의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수입을 얻고 있는지, 정부의 위탁업무로서 어떤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천과 관련되는 부분을 어떻게 연결하여 접목시킬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흥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하천 골재채취 관계는 '골재채취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움직이며, 그 법에 속해 있는 협회가 따로 있는데 골재채취법을 담당하는 관련부서와 협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하천변 비닐하우스에 관한 문제는 현재 정부 업무의 지방이양과 연관되어 하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을 해야 하므로, 하천의 금지행위 중 하나로서 삽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국일 회장

● 김국일 회장

늦었지만 협회가 탄생한 후 처음으로 고문 및 자문위원 여러분들을 모시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좋으신 말씀을 깊이 새겨 앞으로 협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현대화, 산업화 등에 올인 한 결과 자연이 훼손되는 등 하천 또한 제대로 하천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협회가 그러한 문제를 우선 시급히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협회는 설립 초기부터 하천환경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협회가 하천의 본래 모습을 우선 찾아보자는 목적으로 '역사문화특별위원회'를 탄생시켰듯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 현재 하천분야에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수, 치수 등 하천, 수자원의 기본 업무에 대해서도 눈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 협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또한 어떻게 수입원을 만들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책개발, 기술발전, 협회의 사업영역 확대, 그리고 협력단체와의 연계 등 다양한 제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 하천협회의 자국내 NPO (Non-Profit Organization) 단체 관할 사업 등을 검토하여 향후 추진하겠습니다.

하천법을 통합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와 산림청, 소방방재청 등에 나뉘어져 있는 하천관련 법령을 하천법으로 통합하여야 좌우중횡 하천 유역관리 체계가 가능해 지고 하천 골재채취로 야기되는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10년에 한번 시행되는 하천관리 체제로는 하천 토사수지 및 점용허가 문제 등 중요하고 급변하는 하천관련 문제에 대처하기가 미흡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협회 또한 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고문님과 자문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협회에 대한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간담회 기념촬영